

산별로 가자!

20문 20답

산별노조로
뒤집기 한판!



LG화학 노동조합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LG화학 노조가 대기업노조로 아무리 크다고 해도 기업별노조체계에서는 공장의 올타리에 있는 한 더 이상의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한의 노동자 수는 1,500만 명이고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조직률을 가지고서는 기업별노조를 지키는 것조차 힘들며 기존 노동자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언제까지 늘어나는 사교육비, 의료비를 탓해야 합니까?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장밋빛 꿈이 아닙니다.

다. 우리도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산별노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별노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핵심이

유입니다. 늦었지 야~
만 이제부터 시작 깃발도 크고
해야 합니다. 좋네!

이제 결단 합시다.
산별노조! 그 새로
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11월 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산별노조 가결시켜
우리의 고용을 보장받
고 당당히 진군합시다.



[글 순서]

1.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4
2. 지금 산별노조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5
3.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6
4.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역사는? -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산별노조 역사	7
5. 산별노조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9
6. 산별노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완하는가?	10
7. 다른 나라의 산별노조 사례는?	11
8. 복수노조허용과 산별노조는 어떤 관계가 있나?	13
9. 산별노조의 교섭형태는 어떠하며, 기존의 단위노조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	14
10. 산별노조에서 쟁의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단사의 쟁의행위는 가능한가?	15

11. LG화학에서 왜 지금 산별전환을 추진해야 하는가?	16
12. 산별노조가 되면 LG화학의 임단협은 어떻게 되는가?	17
13. LG화학 같은 대기업은 임금이나 복지가 저하되는 것 아닌가?	18
14. 산별전환 시 조합비가 인상되는 것 아닌가?	19
15. 산별전환 시 전임자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20
16. 산별노조가 되면 단사 실정이 무시되고 단사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21
17. 산별노조로 가면 파업만 많아지고 정치투쟁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22
18. 산별노조가 되면 고용문제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23
19.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현황은? 그리고 대산별 정책은 무엇인가?	24
20. 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조합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25

1.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산별노조는 산업별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단일한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를 말합니다. 기업별 노조가 특정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산별노조는 특정산업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성하므로 노조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또한 산별노조는 산업별 교섭을 통해 전체노동자의 고용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별노조는 조직구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더 크게 더 많이 단결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산별노조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지금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한미FTA마저 국회 비준되고 나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은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3권에 족쇄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기업별노조로는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없으며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더 크게 단결하고, 교섭력을 높여야 합니다.



3.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노동3권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단결권	해당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가입	해당산업 전체노동자,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 실업노동자도 가입
단체 교섭권	기업 내 교섭에 머무른다.	산업별 전체 사용자와 교섭, 대정부교섭
단체 행동권	기업별 투쟁에 머무른다.	공장, 지역을 넘어 산업별 전체 공동투쟁

4.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역사는? -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산별노조 역사 -





5. 산별노조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우리는 산별노조를 통해 기업별노조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조직력 확대와 이를 통한 높은 교섭력 확보입니다. 둘째, 대정부/대자본 교섭을 통한 전체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쟁취입니다.

산별노조는 이런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노동자를 산별노조로 모아내면서 조직 확대가 훨씬 용이하며 인력과 재정을 집중시켜 폭넓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별노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산별노조에서는 복지정책, 교육, 의료, 조세 등도 교섭이 가능합니다.

6. 산별노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완하는가?

산별노조가 만능이 아니므로 단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조합이 필요해서 만들었듯이 산별노조도 만들어서 강화한다는 긍정적 생각이 요구됩니다.

산별노조는 집중성이 강하여 중앙의 권한만 강화되고 단위사업장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현장 활동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직선제와 소환제 등을 실시하고 중앙파업이나 교섭체결권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전체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결과 연대가 강화됩니다.

7. 다른 나라의 산별노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고용과 복지가 안정된 나라는 산별노조가 잘 조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 - 회사는 망해도 일자리는 유지

독일 산별노조는 고용안정협약을 통해 어느 사업장에서 공장을 줄이고 인원이 줄어들면 같은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볼보자동차가 인원을 줄이면서 실직한 노동자들이 동일임금과 동일노동조건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샤프자동차로 자리를 옮겨 일을 했습니다.

스웨덴 - 실업 걱정 없다.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실업보험을 관리합니다. 1934년 실업보험의 도입될 때 노조가 노동시장 정책에 개입하고, 실업기금을 관리합니다. 실업보험은 노조가입과 동시에 가입되며, 재취업될 때까지 수급기간 제한 없이 평균임금의 80%를 받습니다. 기금은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가 내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노동시장 수수료'란 이름으로 평균임금의 5.84%를 내고 있습니다.

호주 -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 더 받는다.

호주에서는 파트타임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자 호주의 제조노조는 비정규직에게 시간당 임금의 25%의 할증임금을 더 주도록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함부로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통제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8. 복수노조 허용과 산별노조는 어떤 관계가 있나?

현재 복수노조 허용은 2007년 1월 1일에서 3년간 유예되어 2010년 1월 1일이면 시행됩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삼성이나 포항제철에도 '민주노조'가 세워 질 수 있지만 민주노조가 있는 곳은 회사가 주도하는 노조를 만들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복수노조는 일반적으로는 기업별 복수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 체계 내에서의 복수노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려는 복수노조는 기업별 복수노조로, 노조가 무력화된 일본을 빼고는 유례가 없습니다. 기업별 복수노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노조에 대응할 방법을 기업별 노조에서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별체제에서는 소수라도 큰 힘을 가진 산별노조가 있으면 회사의 공세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9. 산별노조의 교섭형태는 어떠하며, 기존의 단위노조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

산별노조가 되면 산별교섭과 자체 임단협이 진행됩니다. 산별교섭은 중앙교섭과 지역교섭이 있고 기존의 단위노조 단체교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교섭	대정부, 대자본교섭으로 고용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교섭
지부(지역) 교섭	지역차원에서 공통사안을 가지고 교섭할 수 있다.
지회교섭	기존의 단사별 임단협은 그대로 유지

10. 산별노조에서 쟁의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단사의 쟁의행위는 가능한가?

산별노조의 쟁의행위는 크게 산별노조 차원의 전체 쟁의행위와 단사의 쟁의행위가 있게 됩니다. 산별노조 차원의 전체 쟁의행위는 주로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사 쟁의행위는 단사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금처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자체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1. LG화학에서 왜 지금 산별전환을 추진해야 하는가?



LG화학의 산별전환은 많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몇년 전부터 산별전환을 추진했고 현재 75%가 넘게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으며 올 해가 지나면 90% 이상이 산별로 전환합니다. 민주노총 현재 사업과 활동도

산별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구조조정에 시달리며 고용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산별로 전환하여 민주노총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12. 산별노조가 되면 LG화학의 임단협은 어떻게 되는가?

산별노조로 가더라도 사업장내 임금, 복지, 기타 근로조건은 사업장대표가 위임받아서 임단협을 진행합니다. 즉 현재의 LG화학 임단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사에서 필요할 경우 산별노조 위원장의 쟁의권을 위임받아 자체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금속노조처럼 중앙교섭을 통해 전체노동자의 고용과 공통사안에 대해 교섭을 하게 되므로 기업별교섭에서 쟁취하기 어려운 부분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13. LG화학 같은 대기업은 임금이나 복지가 저하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아닙니다. 산별노조가 추구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임금이나 복지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대기업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은 자본가들이 퍼트린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산업별 임금교섭 방식은 산업별 협약을 통해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사업장별 조건에 따라 보충협약을 통해 결정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별노조로 전환 하더라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복지수준이 저하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14. 산별전환 시 조합비가 인상되는 것 아닌가?

현재 금속노조와 화성노조의 조합비는 통상 임금 1%입니다. 우리 LG노조는 조합비가 기본급의 1.5%입니다.

(2007년 10월 기준 평균근속 12년차 남 조합원 기준 조합비는 23,279원입니다.)

LG화학은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차이는 별로 없고 통상임금 1%가 15,519원이므로 7,760원이 남게 되므로 조합원의 조합비를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별노조의 조합비운영은 "하나의 노조" "같은 조합원"이라는 운영원칙으로 조합비를 사용합니다.

15. 산별전환 시 전임자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산별노조가 되더라도 단사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임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임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사 노조활동이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사관계로드 맵에 따라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전임자 임금문제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한국노총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임자 임금금지에 대해서는 산별노조라고 해결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16. 산별노조가 되면 단사 실정이 무시되고 단사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산별노조가 되면 단사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사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산별노조가 되면 단사의 고용문제도 산별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교섭권/체결권이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쟁의권도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산별노조가 되어도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사의 임단협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사의 쟁의행위도 위임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7. 산별노조로 가면 파업만 많아지고 정치투쟁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산별노조는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투쟁의 전술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를 보면서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통해 쟁취한 성과들-연월차/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손배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노동3권 쟁취 등-을 보면 산별노조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에도 '하나의 노조'답게 산별노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18. 산별노조가 되면 고용문제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현재 한국사회는 개별 자본가와만 협상해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별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대정부교섭, 대자본교섭을 통해 고용정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산별노조의 중앙교섭을 통해 고용 관련 '산별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입법 과정은 산별노조가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협력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산별노조 강화에 힘을 집중하여 산별체제의 노사정 관계를 빠르게 구축되게 해야 합니다.

19.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현황은? 그리고 대산별 정책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산별전환사업과 대산별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집중적 산별전환을 통해 현재는 75% 이상이 산별로 전환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산별전환사업과 더불어 수많은 연맹조직을 유사업종끼리 통합하여 4-5개의 대산별노조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제조산별노조, 운수산별노조, 공공서비스노조, 민간서비스노조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산별노조답게 힘을 가지고 교섭력을 높일 수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화섬연맹도 빨리 전환해야 금속노조와 통합도 가능하고 힘 있는 산별사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는 대공장이 다 전환한 상태이므로 이제 화섬의 대공장이 산별로 전환할 차례입니다.

20. 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조합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LG화학노동조합도 대책 없이 기업별노조에 안주하지 말고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11월 9일 반드시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당당하게 산별노조의 일원이 되어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별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혼혹하는

논리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전 조합원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뭉쳐 우리의 희망을 세워갑시다!



비정규직 철폐 연대가

노래 : 김성만

1.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철폐를 외친다.

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

한걸음 다시 헌걸음 철폐연대에 발맞춰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투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2. 나서라 하청(파견, 용역...)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굴욕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눈물과 설움 떨치고 반쪽 희망을 찾아서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해방투쟁으로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산별의 깃발

노래 : 최도은

일터에 힘찬 아침이 밝아온다
맨발로 온몸으로 나서자
억센 팔뚝 굳게 잡은 굵은 손마디
산별의 바다로 함께 가자

시퍼렇게 날 세운 독점의 칼이
우리의 갈 길을 막아도
떠오는 태양을 누가 막으랴
승리의 역사는 우리 것이다.
산별노조 깃발 울려라
기업의 장벽 떨쳐나가자
너와 나의 굳센 단결로
건설하자 산별노조